

OpenDoors

07

2022

VOL.243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카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6)
박해와 선교현장
인도(India)

현장스토리1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다니엘(Daniel)
현장스토리2
인도, 프리타(Preetha) 자매 박해 스토리



OpenDoors

Send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브래더 앤드류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설립자)

예수께서 우리가 “이보다 큰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수준의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가?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가? 무엇보다도 그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가? 그리하여 그분이 이룬 것과 같이 근본부터 뒤튼드는 결과를 얻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거나, 눈먼 자를 보게 하거나,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고픈 사람 수천 명을 먹이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변화, 즉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일으킨 것과 같은 변화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도하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인들처럼 하나님

을 잘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예견하셨던 대로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권위를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가 가고 수십 년이 흐름에 따라 ‘예수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사이의 기도의 줄은 강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쌍방통행의 재미 있는 대화로서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회화가 되지 못하고 바라는 것을 지루하게 열거하는 것으로 전략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며,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 시간을 피하려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함께 하루에 몇 분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게 하는 성경의 원리들을 터득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해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이 기도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들은 놀라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할 정도로 신뢰감을 갖고 응답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요즈음은 흔히 볼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밖에 생각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 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광신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 극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며, 우리 세대에 가장 능력 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도의 용사가 된 나의 오랜 친구 코리텐 붐(Corrie ten Boom)이 나치의 끔찍한 강제수용소에서 경험한 일들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 (나는 코리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결코 거절하실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그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영적인 거인'이나 '믿음의 영웅'으로 간주하는데,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중보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이다.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6)"
- 08 박해와 선교현장
인도(India)
- 16 현장스토리1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다니엘(Daniel)
- 18 현장스토리2
인도, 프리타(Preetha) 자매 박해 스토리
- 22 Heart To Heart
머스카슬론(MUSKATHLON)
- 23 희망의 선물
-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07월호 | 통권 24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

고단했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출소 이후의 삶

마리아 자매

북한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조직에 등록된다. 소년단, 사로청, 녀맹, 직맹, 노동당 등 인생의 절기에 따라 각종 조직에 가입되어 관리를 받는다. 나는 여자들이 일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맹 조직에 속해 있었지만 출소한 이후로는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가 않았고 또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다. 탈북하여 중국을 다녀오고 또 교도소까지 다녀온, 어쩌면 인생의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서 다른 북한 주민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 가기가 쉽지 않았다. 나에게 중국은 어땠냐고 순수하게 물어보는 듯하여도 나의 대답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가 무섭고 싫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막 북송되었을 당시 보위부 조사에서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은 중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한 것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서약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다.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때 중국 생활이 좋다고 선전하면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라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고 중국 이야기를 누설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서약 때문이라도 더더욱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동네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되었다.

특히 2년 동안 교화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는데, 출소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새로워진 이 모든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를 쌓아갈 여유가 없었다. 물론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보다 훨씬 불안감이 덜했다.

북한은 워낙 감시체제가 철저한 사회인지라 하루가 멀다 하고 여맹위원장이나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왜 조직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담당형사에게 가서 매일 나의 행방을 보고하고 '왜 마리아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느냐'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가끔씩 친구들 만나러 옆동네에 가면 그걸 또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조직 생활은 안 하면서 엄한 곳만 다녀온다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느냐'면서 남의 인생에 참견질을 하였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돌봄 및 교양의 대상이자 그들의 시야와 정상적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아주 부패타락한 사람이며 감시 대상일 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널리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모든 조직은 본래 나라를 위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일 터이지만 이제는 나라에 바치는 각종 세금과 부담들이 대단하여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할 지경이었다. 겨울에는 추운 날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후원으로 토끼털 가족을 바치라고 할 때도 있었고, 지역 사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세대별로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는 등 지침이 내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민반을 통한 세대부담 뿐만 아니라 각자 속해 있는 여맹, 직맹, 학교 등에서도 각기 부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이중, 삼중 나라에 바쳐야 하는 것이 많았다. 원래대로라면 나라에서 배급을 주어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어찌된 것인지 백성들에게 배급은 끊겨서 살 길은 막막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 동원되는 것도 많아서 참으로 살기가 여간 빠듯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사회에 대한 불만은 표출하는 것은 그 즉시 문제가 되었다. 하루는 인민반장이 돈을 걷으러 왔을 때 내가 '도대체 이 나라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돈 낼 게 많냐'고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다. 여맹 위원장에게도 '대체 이 나라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백성을 이런 식으로 못살게 구느냐'며 따졌더니 돌아오는 말은, '우리가 굶어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세뇌가 잘 됐는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옆집 시댁 형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돈 걷으러 왔던 여맹위원장에게 한 마디 했다는 소리를 하자 형님이 펄쩍 뛰면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자꾸 그러다가 그런 말이 쌓이고 쌓여서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어렵פות이 알고는 있었으나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을 새삼 내 두 귀로 직접 들으니 마음의 위협과 압박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서글프고 원망감이 더해졌다.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을 다 보듬어주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 갑자기 출소하여 몇 년 만에 합류된 가족 안에서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니 집에 대한 안정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잦은 갈등에 의해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일쑤였다. 생계 유지도 어려울뿐더러 마음이 강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에 따뜻하게 말 한마디 오가는 것이 참 어려운 날도 있었다. 시어머니와 다들 때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저렇게 살려놔 가지고 데려왔냐? 면회도 가지 말 것이지."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다.

중국에서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내 인생과 행복의 전부였던 우리 아이들 하고도 본의 아니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애들 입장에서서는 엄마 없는 오랜 세월동안 아빠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별안간 낯선 엄마가 나타나 아빠와 자꾸 다투고 집안 분위기를 망쳐 놓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애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내가 집에 온 이후로는 그동안 만남의 광장과 같았던 집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원래는 마실방처럼 애 아빠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서 담배도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출소하고 나서 한창 예민하고 민감했다. 중국에서 생존을 위해 남한 말씨를 열심히 배워왔기에 나의 발음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바깥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너무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아예 우리집은 사람 접촉을 없애자'라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정말로 친한 사람 외에는 우리집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우리 집에 유일하게 초대를 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하고만 어울렸다.

하루는 집안에 초대한 사람들과 중국 백화점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짐이 많아지면 보관함



에 짐을 잠시 놓아두는 체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기 북조선에서는 백화점 물품보관소는커녕 흙길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를 갖기도 어렵다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공허해졌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우리 딸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되었다. 언제 한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얼굴빛을 확 바꾸면서 '우리 나라도 생산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며 화를 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 같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엄마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엄마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저 멀리 있는 엄마에게 저 끝에서부터 "엄마!"하고 소리치며 반갑게 달려와 안기는 것이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좁은 골목에서 마주쳐 지나가도 나에게 아는 척도 안 했다.



어느 날은 집에 앉아서 남편 양말을 꿰매고 있는데 시형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우리 딸을 찾았다. 아주 성질이 불같은 분이신데 그날따라 노발대발하며 우리 딸에게 '누구 집에 들어가서 과일을 훔쳤냐'고 화를 냈다. 알고 보니 친구와 함께 담을 넘어 남의 집 과일을 따다가 들킨 것이었다. 나는 우리집이 가난하여 우리 딸이 남의 집 과일을 훔쳤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엄마가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인데 딸마저 다른 사람들 눈에 낙인이 찍히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다. 시형 들으라고 부러 큰소리로 딸에게 "엄마가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인데 너라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너가 이렇게 훔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혼을 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본인이 먹고 싶다고 지나가면서 말한 소리를 손녀딸이 들었나 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하셨다. 알고 보니 며칠 전부터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어렵듯이 지나가는 말로 '시원한 과일이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나중에 혼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온다고,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겼었는데 바로 학교 운동회 날이었다. 보통 평소에는 흔히

잘 못 먹고 살아도 운동회날만큼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다 주는 분위기였다. 나도 그날만큼은 중국에서 요리를 배워온 실력을 발휘하여 정성스럽게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더니 자기는 이럴 때만큼은 남한테 빚을 저서라도 잘해준다며 반찬을 더 하자고 했다. 그동안 엄마없이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모범 아빠였던 것이다. 남편 말을 듣고 동네 상점에서 재료를 조금 더 사서 요리했다.

체육대회 당일에는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갔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울타리에 있었고 건물만 달랐다. 점심시간에 아이들 도시락을 다 둘러보았지만 우리 아이들 것만큼 그럴듯한 도시락은 없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김밥, 인조고기, 떡, 생선, 해물, 산나물, 각종 나물 등... 아이들도 은근히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눈치였다.

오후에는 장기자랑을 했다. 우리 딸이 순서가 되어 앞으로 나가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정말 께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참 잘했다. 소년단 주임이 '누구 딸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느냐' 했더니 딸이 나를 가리켰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기 뒤쪽에 특이한 안경을 낀 학부모'를 불렀다. 당시에 중국에서 사온 안경을 쓰고 있던 나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고 딸 옆에 서서 사람들의 호응에 맞추어 노래를 몇 곡 더 불렀다. 물론 김일성 3대를 칭송하는 노래를 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합류하여 우리 셋이서 다같이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노래 솜씨를 뽐냈다. 참으로 각박한 세월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기억이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과 차츰 관계가 좋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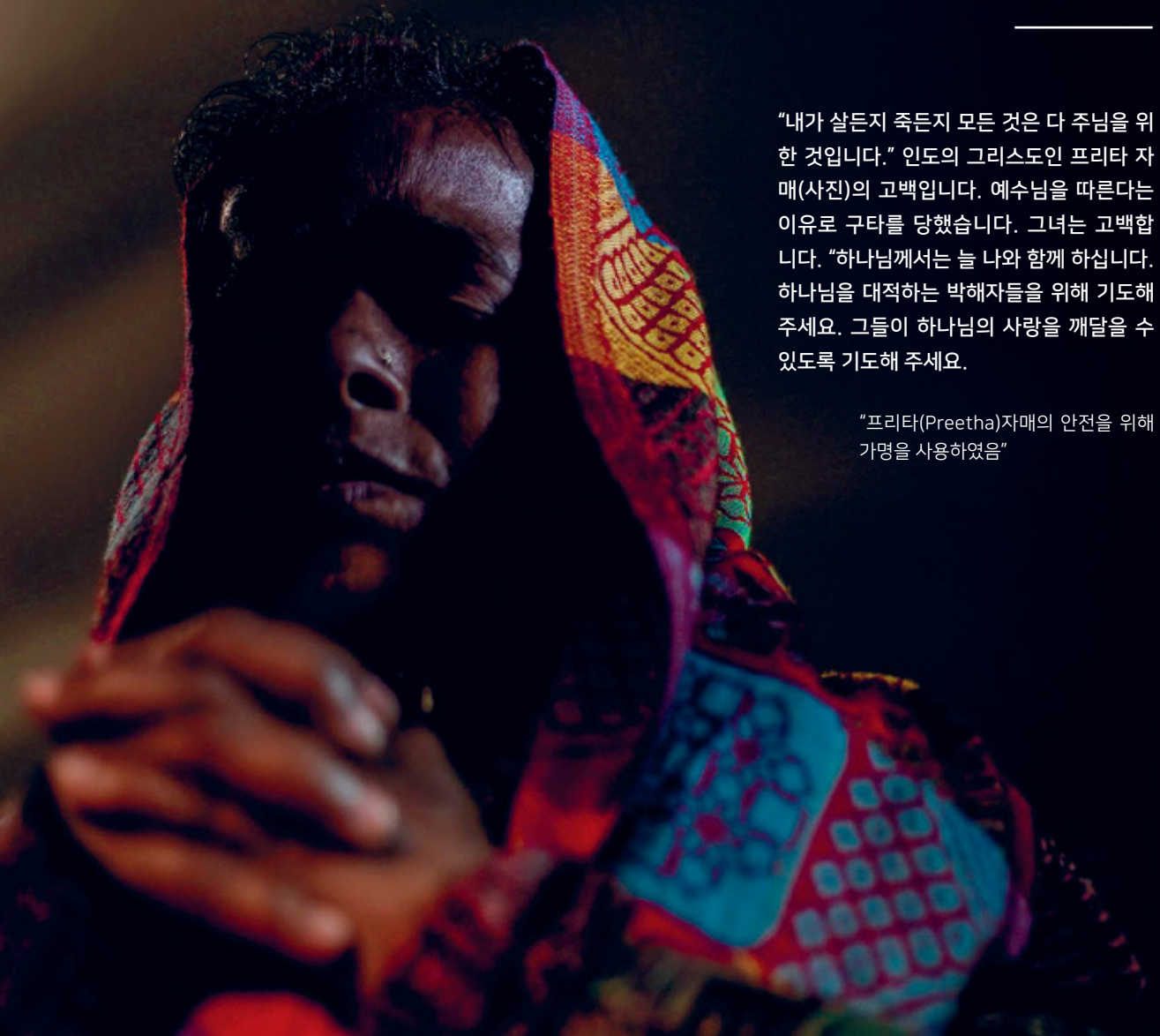
돌이켜 생각해보면 출소 이후의 삶은 심적으로도 고군분투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으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으며 순간순간마다 여러 상황들을 헤쳐 나가고 또 풀어낼 수 있었던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한국에서 가끔씩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북한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울리는 질문이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곳을 마냥 욕하고 싶지는 않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품어야 할 곳이다. 그 곳에서의 나의 삶과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4-15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인도의 그리스도인 프리타 자매(사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프리타(Preetha)자매의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음”



인도(India)



폭력과 압력의 수준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힌두 급진주의자들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를 민족에 대항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권리는 침해된다. 힌두 급진주의자들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인도 내에서 몰아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갖은 박해를 견디고 있

으며, 힌두교로 다시 개종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르왁시(Ghar Wapsi: 집으로 돌아오라는 뜻의 힌두어)로 알려진 캠페인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 그리스도인들은 빈번하게 신체적 폭력을 당하며, 살해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Narendra Modi)

인구: 1,397,423,000 명

기독교인 수: 68,863,000 명 (4.9%)

주요종교: 힌두교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연방의회공화제)

주 박해 요인: 종교민족주의, 독재정권, 가족의 박해, 민족-종교적 적대



인도의 상황

주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8,863,000	4.9
무슬림	203,971,000	14.6
힌두교인	1,010,526,000	72.3
민족종교인	50,030,000	3.6

인도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연방공화국인 인도는 수도 뉴델리에 외교, 안보, 경제를 통제하는 중앙정부를 두고 있다. 인도 헌법은 인도를 비종교국가로 선언한다. 그러나 힌두 급진주의자들은 힌두교를 인도의 국가 종교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종교 개종 금지법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모디(Modi) 총리는 2002년 쿠자라트(Gujarat) 지역에서 발생한 학살 때,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된 수백 명의 무슬림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과 반성으로 2014년에 총리에 당선되었다. 그는 2019년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한 번 총리 자리에 올랐다. 모디가 총리가 된 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종교자유법'이나 '강제개종금지법'은 종교 개종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법령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이러한 종교 관련 법안들은 기독교인들을 무고하게 기소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 실제로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에서도 포교활동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2019년 8월, 모디 정부는 잠무(Jammu)주와 카쉬미르(Kashmir)주에서 이슬람 반군을 완전히 척결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하나의 주를 두 개의 구역으로 구성하는 법령 370조를 삭제함으로써, 이 지역들에 대해 더 많은 직접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주(State)정부가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 역시 삭제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대규모 군사배치와 함께 진행되었다. 인도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빈부 격차가 크고, 빈곤층 비율이 상상을 초월한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

수천년의 역사를 갖는 인도 사회의 계급 체계인 카스트제도는 여전히 인도 사회 어디에나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카스트의 낮은 계급(불가촉천민으로 불리며 배척받는 달리트/Dalits 계급) 출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기독교로 개종하지만, 교회 내부에도 동일한 장벽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기독교인들은 구호품 배분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사회 공헌 사업을 위해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독교 NGO단체들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인터넷상의 자유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사회적 불안과 허위정보가 성행하던 시기에 인터넷이 폐쇄되었고, 온라인 활동과 관련한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 명예살인, 염산투척, 집단구타와 기타 잔혹 행위 등 높은 수준의 물리적 폭력이 인도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 또한 부패하여 구금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또다른 세력은 인도의 가난한 시골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주의 무장세력인 마오주의자들(Maoists: 마오쩌둥을 따르는 공산주의의 분파)이다. 마오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드러나면 마오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처형된다. 파키스탄, 중국, 네팔과의 국경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인들에게 또다른 위협이 된다.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이며, 이슬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의 무슬림 인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non-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를 통해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도 악명 높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건물을 보수하려고 하면, 정부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뇌물을 요구 받는다.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전통부족종교들도 민족-종교(ethno-religious)로 남아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힌두교 극단주의단체들은 시골 외곽지역을 비롯해 인도 전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포교활동을 면밀히 주시한다. 집권당인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이들이 강력한 야당으로서 힘을 발휘한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포교활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인도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들

현재 인도에는 여러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구권에서 온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국인 난민 기독교 공동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난민 공동체가 수도 뉴델리에 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

로마 카톨릭, 정교회와 성공회 기반의 교회들과 주후 3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통 케랄라마르 도마교회(The Orthodox Kerala Mar Thoma Church)가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이들 교파의 존재는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인도 땅에 존재해 왔음을 반증한다.

개종자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들

힌두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 이들 개종자들은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며 힌두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슬람, 시크교,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또한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지만, 그 숫자는 힌두교 개종자들에 비해 훨씬 적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무슬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한해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Non-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를 통해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길거리 전도 등의 포교활동을 나서면서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힌두교-종교 민족주의:

모든 힌두교 단체들의 독단과 공격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가 힌두교를 국교로 해야하며, 다른 종교들은 인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두교 급진주의는 인도 내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세력이다. 이들은 인도 전역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매우 폭력적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적 민족주의의 활동들이 나타나는데, 라다크(Ladakh)지역의 극단주의 불교 세력,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지역의 신-불교 세력과 펀자브(Punjab) 지역의 극단주의 시크교 세력과 같은 급진주의 단체들의 폭력행위를 포함한다. 이들 민족주의 단체들의 급진적 활동들은 인도의 박해 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힌두교-종교 민족주의와 결합한 독재정권:

2019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스트롱맨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를 필두로 새 정부를 구성했다. 그 결과, 독재적 경향이 커지고 있다. 모디 정부의 소셜 미디어 통

제, 선동적 연설, 정부의 정책과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보도 금지명령 조치는 정부 내각 내에 독재적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몇 가지 신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자, 야당지도부, 인권운동가와 미디어 책임자들에 대해 가짜 뉴스 유포를 포함한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 기독교와 같은 '이방' 종교에 반대하는 선전 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혈족에 의한 탄압

혈족/씨족에 의한 탄압은 인도 북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자트 벨트(Jat Belt)라고 불리는 펀자브지역(Punjab), 하리아나(Haryana)와 라자스탄(Rajasthan)과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일부 지역에서는, '카프 판카야츠(Khap pankayats)'라고 하는 '혈족 법원'이 권력을 휘두른다. 혈족 법원인 카프 판카야츠(Khap pankayats)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고 여겨지며, 국가의 법체계와는 별개로 기능한다. 국가사법기관들은 카프 판카야츠의 활동을 종종 묵인한다. 경찰 역시 카프 판카야츠를 운영하는 공동체 출신으로 이들 활동에 협조적이다. 카프 판카야츠 혈족법원들은 현대적인 것에 반대하며, 혈족 공동체의 규율을 벗어나고 종교와 혈족 내 사회적 지위에 반하는 혼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기준에 기독교로의 개종은 심각한 범죄이다. 혈족/씨족 박해는 인도 교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소수인 인도 본토의 부족 마을에서는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가르왓시(Ghar Wapsi)' 캠페인을 통해 힌두교로 재개종을 강요받고 있다. 힌두교 광신자들의 영향을 받는 마을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여하고 그들의 집을 파괴한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며, 마을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하면 마을에서 축출된다.

힌두-종교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민족-종교적 적대감: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자르칸드(Jharkhand), 오디샤(Odisha), 남부 마디아 프라데쉬(southern Madhya Pradesh), 남부 구자라트(southern Gujarat), 아루나찰 프라데쉬(Arunachal Pradesh), 아쌈(Assam), 트리푸라(Tripura), 나갈랜드(Nagaland)와 마니푸르(Manipur) 주에는 부족 마을들이 존재한다. 힌두교 급진주의 운동인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는 이들 부족사회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부족지역에서 교회는 최소 150년 전부터 존재해오고 있

으며 당시에 기독교 박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RSS, VHP(Vishwa Hindu Parishad)와 연계된 단체들은 부족 사회를 분열시키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족 사회 내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들에게 위협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며, 추방되고, 식수 수급을 거절당하고, 강간당하며 심지어 살해되기까지 한다. 교회 건축 공사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강제 중단된 사례도 너무나 많다. 이처럼 민족-종교적 적대감은 급속하게 확산되며 인도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박해의 차이 여성

기독교 여성에 대한 박해는 성추행,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통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의 딸, 여자형제와 배우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성적 순결은 가족의 명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적 공격은 가족에게 수치심을 심어준다. 신체적 공격은 염산투척, 잔혹한 구타/폭행과 살인을 포함한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택연금, 강제 결혼, 강제 이혼과 강제 출가의 위협을 감수한다. 카스트 계급의 가장 낮은 계급인 달리트(Dalit) 출신의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들이 달리트 계급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중 표적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 유괴/납치
- 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금지
- 재산/유산 상속 금지
- 공동시설/자원 이용 금지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강제 출가/추방
- 마을/국가에서 강제 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인신매매
- 살인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성폭력
- 언어폭력

남성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남성에 대한 박해는 가장의 지위를 해하는 것과 더불어, 남성의 신체적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남성에 대한 박해는 가혹한 구타, 살인과 감정/정신적 고문이 포함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인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여겨진다. 개종자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가족에 의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자원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될 수 있다. 힌두교의 신/여신들을 모독했다고 하는 기소가 빈번하게 제기된다.

- 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금지
- 공동시설/자원 이용 금지
- 식료품/식수 이용 금지
- 재산/유산 상속 금지
- 교육에 대한 차별/괴롭힘
- 직장/구직/사업 영역에서의 경제적 괴롭힘
- 과도한 벌금 부과를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무고한 기소
- 강제 출가/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 징병/군복무
- 여행금지/이동제한
- 살인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언어폭력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및 박해지수 동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10	80.82
2021	10	83.44
2020	10	82.69
2019	10	82.64
2018	11	80.59

인도의 2022년도 박해지수는 지난해 보다 약간 떨어진 82점을 기록했다. 박해지수가 작년 보다 떨어졌으나 이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폭력지수는 극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삶의 영역별 압력지수 또한 매우 높음이나 극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그들의 공격은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의 사례들

- 2020년 12월 19일, 경찰은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지역에서 '개종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급식량과 기타 구호물품을 배분하면서 불법적인 개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 2021년 8월 11일, 14세의 크리스천 소년이 비하르 주 가야구역(Gaya district, Bihar state)에서 힌두교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소년에게 염산을 투척하여 신체의 70% 이상에 심한 화상을 입혔다. 소년은 한 달 뒤, 결국 사망했다.

WWL 년도	사망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건물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수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
2022	10	1310	38	1779
2021	12	72	15	1500

위 표는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 중 월드와치리스트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일부 범주만을 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 (년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포교 활동으로 간주된다. 인도 북동부 지역의 2~3개 주(State)를 제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은 개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교회 예배와 같은 활동들조차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무고하게 기소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강제 개종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이 빈번하게 동반된다. 외국인 기독교인이 선교사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정 영역

인도 청소년법은 힌두교도가 아닌 부모가 힌두교도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 입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입양 심의 위원회 위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크리스천 어린이들은 크리스천학교에서조차 요가와 힌두문학, 힌두신화와 같은 힌두교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세례는 세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와 세례를 받는 이들 모두에게 너무나 위험하다. 크리스천 어린이들, 특히 개종자들의 자녀들은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극심한 차별과 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한다.

공동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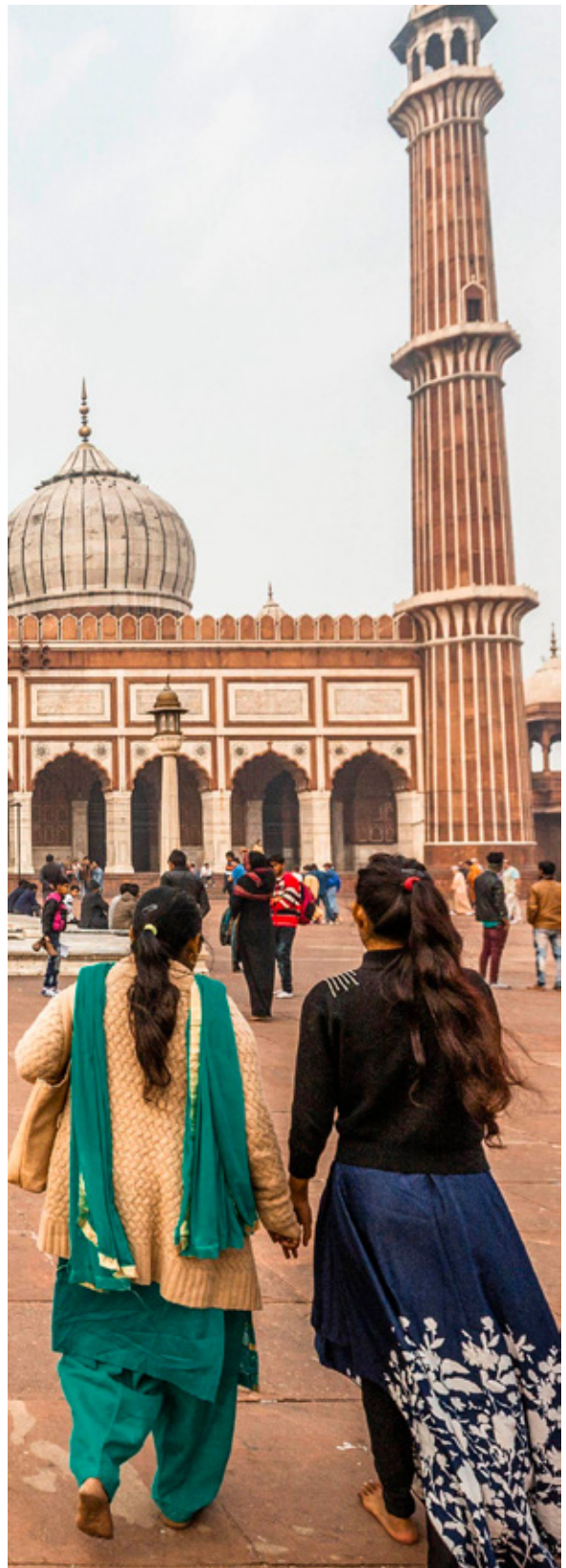
지난 5년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힌두교 급진주의 단체들과 지역사회의 감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 포교활동을 막는 것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학대/괴롭힘, 위협과 사회적 차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르 왓시(Ghar Wapsi: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의 힌두교의 재개종 운동) 캠페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동체의 압박을 통해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

국가 영역

인도의 28개 주(state) 중 9개 주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종금지법안이 강제 시행되고 있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독교 단체는 개종이나 기독교 옹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외기부금규정법(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에 항상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인도 방언으로 방송되는 미디어는 보통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시골 외곽지역에서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선동과 선전 방송이 빈번하게 송출되는 등 더욱 적대적이다.

교회 영역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해외자금규제, 외국인 선교사 초청금지, 까다로운 등록절차 부여, 개종금지법시행 등 많은 규제들을 시행했다. 지역 정부 당국과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인터넷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기 방문하는 관광객도 설교나 전도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로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추방되고 있다. 2021년 월드와치리스트 조사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 혈통의 외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들 또한 인도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추방되었다. 공격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은 더 많은 폭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5년간 평균 박해지수 동향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수 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5년 인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는 큰 변화 없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평균 박해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니제르 연도별 폭력 박해 지수 동향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 (16.7/만점)
2022	13.3
2021	13.6
2020	13.6
2019	13.5
2018	13.2

5년간 영역별 압력박해 지수 동향



지난 5년 간 5개 압력영역에 대한 압력 박해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모디 총리의 집권 아래 인도 내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심각하게 압력박해가 행해지는 영역은 국가, 교회, 공동체 영역이다. 그러나 다른 두 개 영역(가정, 개인) 또한 평균 이상의 박해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인도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우며,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5년간 폭력박해 지수 동향



인도는 스스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지난 5년 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박해 수준은 극심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은 기독교와 같은 '이방 종교'를 국가에서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는 힌두교 급진주의 단체들이다. 뉴델리의 중앙 정부와 여러 주(state) 지방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잔혹한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인과 잔혹한 폭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인도의 월드와치리스트 폭력박해 지수는 15.6포인트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은 이슬람과 기독교 모두를 '이방 종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도에서 사라져야 할 종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수의 무슬림들은 힌두 무장세력들로부터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박해를 경험한다. 불교도와 시크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인도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인도 현지 교회 파트너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개발 지원: 성인 문맹학교, 직업교육과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긴급지원
- 인권보호활동: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신속대응팀 활동
- 기독교 관련 자료 배포
-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회 지도자, 여성, 청년/청소년, 어린이와 가정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다니엘

다니엘은 인도 서부지역 출신으로,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다. 평범한 키에 40대 중반 남성인 그는 대화 내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 사역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인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2014년 모디 총리의 BJP 정부(Bharatiya Janata Party: 힌두교 근본주의 우익 성향의 정당)가 들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다. 집권 후 BJP 정부는 차츰 힘을 얻기 시작하여, 인도 전역에 지방 정부를 구성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으며, 정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니엘은 “인도의 현재 상황은 매우 나쁘며, 매년 악화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박해 사건과 관련된 기도 요청을 매일 2-3건씩 받고 있다고 말한다. 사건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폭력의 강도 또한 높다. 다니엘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몇 달 전 발생한 기독교인 청년 지도자가 임신 공격을 당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임신 공격을 당한 청년 리더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잔인한 폭력 행위 외에도, 아주 널리 퍼져 있음에도 잘 다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박해들이 많이 있다. 왜

냐하면 지금은 극단주의 그룹들에 의해 공동체 전체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보이콧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의 박해”라고 전한다. 사회적 보이콧은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지역사회 행사에 불참시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고용 기회도 주어지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정신적 학대나 마을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의미할 수도 있다.

외딴 도시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엔 협박과 위협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보이콧, 기물파손, 잔혹한 구타로 이어지는 박해의 과정을 겪고 결국은 마을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지역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이유를 묻자, 다니엘은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증오심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기독교인은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잘못 표현됩니다.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소수인 기독교인들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로부터의 박해 외에도, 국가행정당국과 사법 기관에 의한 박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근거 없는 이유와 모함으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체포되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돈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개종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모함으로 종종 기소를 당한다. 이러한 모함으로 기소되면, 보석금을 통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 종교 개종과 관련된 몇몇 법안들은 심지어 기소를 위해 경찰이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진다.

다니엘은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고 체포되고 있으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모함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소를 통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인도 내의 기독교 박해는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 반 기독교인 세력들은 자신들의 극단주의 사상을 다음세대의 의식 속에 주입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다니엘은 최근 힌두 민족주의 운동이 어떻게 인도의 교육제도 안에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인도 교과서를 통해 조작되고 있는지, 인도 정부와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힌두교 신화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며 학생들에게 힌두교 의식을 지키도록 강제하는지에 대해 전해주었다.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오픈도어 파트너로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다양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니엘은 오픈도어의 캠페인이 어려운 박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면,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걱정과 염려와 박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그들의 필요를 전할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픈도어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매우 진지하게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아니었다면, 인도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거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박해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사역에 전념했다. 다니엘은 작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기간 중에도 지칠 줄 모르고 사역했으며, 사역지의 수백 여 가정들에 원활한 식료품 배분을 도울 수 있었다. 일자리,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현장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었다.

가장 끔찍했던 팬데믹의 여파는 작년 2021년 코로나19 2차 확산 때 수천 명의 목회자들의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다니엘은 당시의 암울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보건의료 관리의 부실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기독교 목회자들의 사망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그들이 돕고자 했던 모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수차례 개입해 주신 덕분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

다니엘은 오픈도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그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싱글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그녀는 직업도 없고, 수중에 음식을 살 돈도 없어서 며칠 동안 굶는 상태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을 공동체의 다른 아이들이 그녀의 둘째 아들을 폭행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이다. 마을의 소년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녀의 둘째 아들을 증오했다. 그녀는 아들을 치료할 돈이 없었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다른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어 적절한 시기에 아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다. 다니엘과 다른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다니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다니엘은 “그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기적적이게도 그녀의 사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도움 외에도, 다니엘을 비롯한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다양한 박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박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들 또한 존재한다. 다니엘과 같은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절망이 가득한 인도 기독교인의 삶 속에 희망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 기독교 박해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거의 매일 공격을 받고 있다.

다니엘은 또한 힌두주의 세계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각종 규제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무고한 기소들과 목회자에 대한 적대적 비방은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박해들의 존재가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다니엘은 “인도 내 기독교 박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오픈도어의 사역은 지속되어

야 합니다. 박해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필요와 요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며 오픈도어 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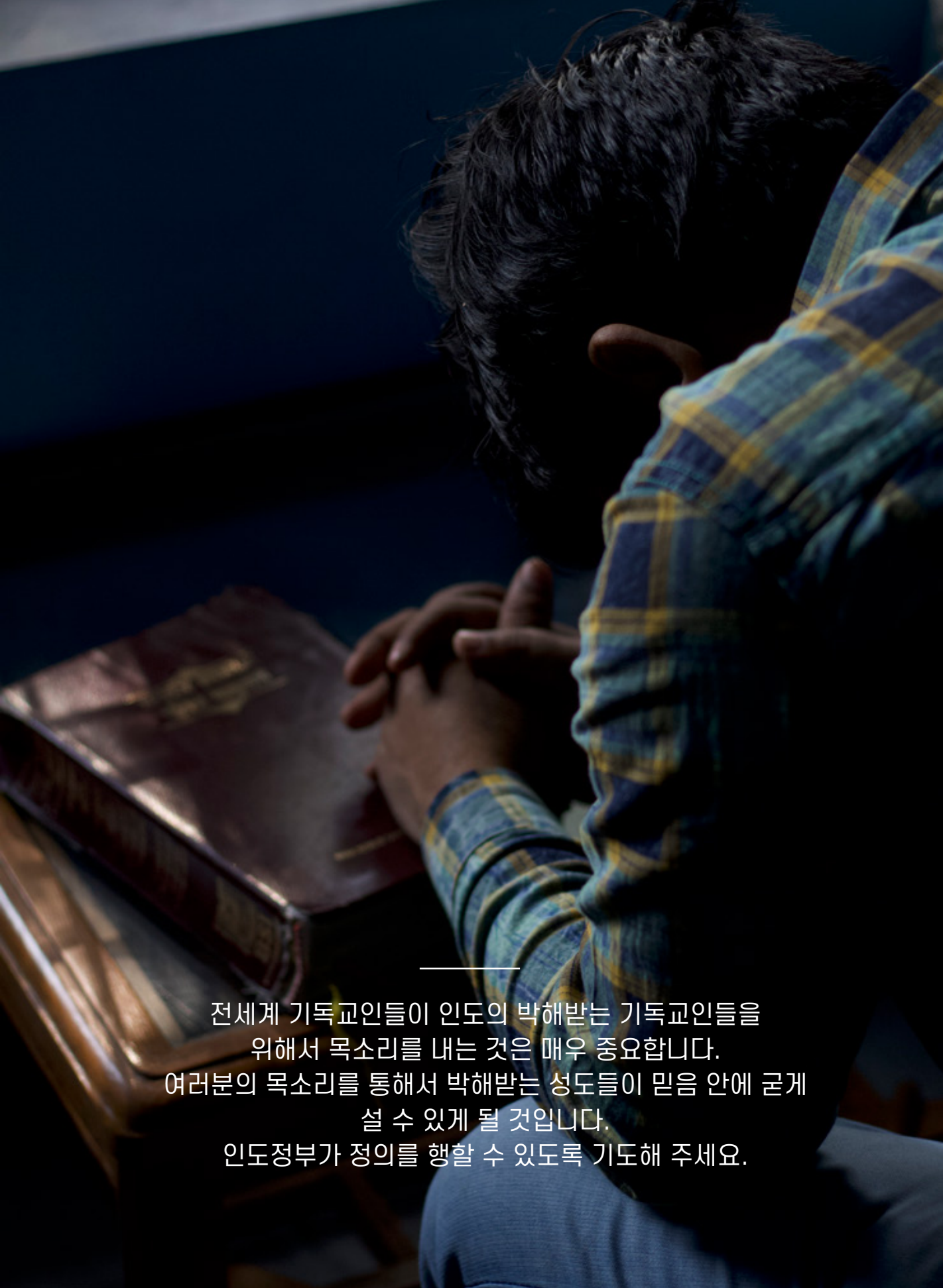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 피해자들을 돕는 사역에 대한 다니엘의 놀라운 열정만큼,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한다는 이유로 반-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감시를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들은 비밀 유지가 생명이다.

인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개적 잔혹 행위가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극단주의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인도 언론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고 모든 행정당국자들은 대체로 열성 극단주의 세력들을 지지한다.

다니엘은 전세계 기도 동역자들에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인도 내에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인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정부에 인도 크리스천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인도정부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또한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는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도 기독교인들을 아낌없는 도와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 전세계 크리스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했다. 단지 형식적인 기도 요청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진심이 묻어나온 기도 제목이었다. “인도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성숙해져서 박해를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도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 close-up, high-angle shot of a person with dark, wavy hair, wearing a blue and yellow plaid shirt. They are kneeling or sitting low to the ground, with their hands clasped together in prayer over an open Bible. The Bible has a dark cover with gold lettering.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person's hair and the texture of the shirt and Bible cover.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인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정부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프리타(Preetha)*의 결정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타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함입니다.”

프리타가 병원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깊게 베인 상처들이 있었고 사방은 핏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천천히 그녀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술 취한 남자, 그리고 쇠로 만든 막대기...

그녀 옆에 앉은 그녀의 어린 아들은 울부짖으며 묻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엄마를 치료할 수 없대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프리타(Preetha)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그녀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은 그녀를 치료할 의료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프리타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프리타는 생각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다.

프리타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녀의 남편 나빈(Navin)*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프리타-나빈 부부의 새로운 신앙인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협했고, 사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외국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인도에 대항하는 것(Anti-Indian)’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리타와 나빈은 출석하는 교회의 비니타(Vinita)* 자매와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남자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 뒤 무리의 남자들로 집이 가득 찼습니다. 이들 남성들에게 술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남자 무리 중 우두머리 남성이 나빈의 셔츠를 움켜 잡으며, “우리는 너희들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 곳에 있길 원치 않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다른 남자들은 눈에 띄는 것을 모조리 부수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니타 자매의 갓난 아기 딸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프리타는 바닥의 아이를 얼른 들어올리려 했지만, 무리 중에 한 남성이 프리타를 붙잡고, 손에 든 쇠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프리타는 이를 제지해 보려고 손을 들어 보았지만, 곧 모든 것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구출되다.

그녀가 처음 방문했던 병원은 그녀를 공격했던 이들의 압박 때문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녀의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프리타 자매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프리타 자매가 당한 공격은 이들 가족만을 향한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인도 내 기독교 박해 폭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기 위해 거짓 선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극

단주의자들의 목표는 인도 내에 힌두교가 아닌 모든 종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프리타 자매와 같은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공급과 현실적 필요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세계 교회들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리타 자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를 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프리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녀의 손은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 프리타 자매를 공격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인도 내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이 도움이 가장 시급한 현지 기독교인들과 잘 접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 프리타 자매 가정을 비롯한 박해받는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긴급구호와 영적 공급을 위해 후원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를 방문하셔서 정기후원(GIVE MONTHLY)의 ‘아시아’를 선택하시면 프리타자매를 비롯한 인도 기독교인들을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캠페인별 후원’을 통해서 일시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큐알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후원하기로 연결됩니다.

※ 문의: 후원문의(010-7548-3171) / 사무실(02-596-3171, 070-7522-3171)



2022

오픈도어와 함께

Camp, Pray, Run!

죽어가는 북한을 위해 C.P.R 하자!



“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요한계시록 3:2]

2022년 9월 26일(월)-28일(수) (2박3일)

장 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참가인원 선착순 50명 + 해외참가자(40명)

일 정 연천 땅밋기 기도회
캠핑(고대산 캠핑 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참 가 비 25만원(숙식포함)

신청기간 7월 4일(월)~ 8월5일(금)

대회종목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하이킹
(6km, 10km, 21km, 42km)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아래 QR코드 참고)

문의 | 02-596-3171 이메일 | odsk@opendoors.or.kr

주관 | 한국오픈도어 주최 | 4M & 오픈도어NL 협력 | DMZ 선교연합 CGNTV



신청 바로가기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